

금융위원장,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

- 금융위원장·금융감독원장, 5대 지주회장과 간담회 개최
- 시장불안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요청
-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 독려
- 금융산업 경쟁촉진과 경쟁력 강화정책 지속 추진

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,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,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.

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,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,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다.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,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.

아울러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금융산업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임경영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. 최근 추진해오던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뿐만 아니라, 유능하고 적극적인 대표이사의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.

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책임경영이 전제된다면,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과 규율체계 정비도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.

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지주가 취약계층 지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하면서,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. 또한 국내·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PF 리스크 등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대응체계를 탄탄히 갖출 것을 요청하였다.

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장단은 금융시장과 고객들이 금융지주에 대해 바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.

※ (별첨) 금융위원장 인사말씀

담당 부서	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서기관	송현지 (02-2100-2831)
			사무관	김수빈 (02-2100-2833)
<공 동>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창운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변재은 (02-3145-8001)

